



여수에 크루즈 여행객 2200명 왔다 24일 대만 기룡항을 출발해 여수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아쿠아리우스호에서 2200여명의 여행객이 입국수속을 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고 있다. 5박6일 간의 크루즈여행에서 이들은 이날 빅소 등 여수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다음날인 25일 일본 나가사키를 경유해 기룡으로 돌아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정상회담 만반의 준비 오늘 남북 합동 리허설

### 남북정상회담 D-2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상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집 일대에서 1차 리허설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장식 준비위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준비위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일정과 동선을 점검하고 행사 시설 설치 상황을 파악하는 등 준비현황을 면밀하게 체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준석 준비위원장은 “양 정상은 첫 만남과 공식 환영식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고 권 관장이 전했다.

이날 1차 리허설에는 임준석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의제분과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동분과장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근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군사분계선(MDL)부터 공식 환영식이 예정된 자유의 집 마당, 회담장인 평화의 집 내부까지 둘러보는 등 정상회담 일정과 동선에

맞춰 한차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준비위는 25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 일대에서 김강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와 합동 리허설을 하고, 26일에는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 모두 참여해 모든 공식행사를 시연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중전 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그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4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면 일본과 북한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대통령 “6월 개헌 약속 무산 강한 유감”

###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 개헌 시한을 이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었는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by20

## 2018 PINK RUN GWANGJU

상무시민공원  
2018년 5월 27일 09시30분 출발

종 목 | 10km / 3km  
참 가 비 | 1만원(전액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3,000명  
기 념 품 |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 핑크런 사무국(1688 9744)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pinkcampaign.com  
접수시작 | 3월26일 ~ 선착순 접수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 민주 시장·군수 후보 경선 이변 속출

### ■ 주요 정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24일 현재)

선거구	민주당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목포			박홍률	
여수	권세도			
순천	허석	양효석	이창용	
나주	강인규		김대동	
광양	김재무	김현욱		
담양	최형식	강승환		
장성	윤시석			
곡성	유근기		박용두	
구례	김순호		박인환	
고흥	공영민	송귀근		
보성	김철우			
화순	구충근	임호경		
장흥	박병동			
강진	이승욱	곽영체		
완도	신우철			
해남	이길운	명현관		
진도	이동진	장일		
영암	전동평			
무안	정영덕			
영광	김준성	김연관		
함평	김성모	이윤행		
신안	보류			

### 신인 가산점 10% 위력 ... 전남, 현역 단체장 8명 중 4명 탈락

민주당 전남지역 시장·군수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속출했다. 신인 가점(10%)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현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경선에 나선 현역 단체장 8명 가운데 겨우 4명만 살아남았다. '화요일의 대학살'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2~23일 이틀간 실시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는 권세도(50.19%) 후보가 주철현(38.92%) 현 시장과 김유화(19.31%) 여수시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장 경선에서는 허석(60.27%) 후보가 조종훈(39.73%) 현 시장을 20.54%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며 후보로 확정됐다.

장흥군수 후보는 박병동(53.63%) 전 여수경찰서장이, 강진군수 후보는 이승욱(53.35%) 전 여수부시장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김성(46.13%) 현 군수를, 이 전 부시장은 강진원(46.35%) 현 군수를 각각 7.5%포인트와 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김 군수와 강 군수가 탈락 전력 등으로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구례군수 경선에서는 김순호(36.54%) 후보가 최성현(34.46%), 이창호(31.91%)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장성군수 후보에는 윤시석(70.59%) 후보가 김수공(32.35%) 후보를 상대로 표차를 크게 벌리며 공천장을 확보했다. 윤 후보는 무소속 현역인 유두석 군수와 결전을 벌인다.

함평은 안병호 군수가 경선을 앞두고 중도하차하면서 김성모(48.9%) 후보와 박래욱(47.62%)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1.34%포인트 차로 김 후보가 승리했다. 뇌물수수 등 비리로 낙마해 군수 자리가 비어있는 무안과 해남은 지방의원들이 후보가 됐다. 해남군수 경선은 이길운(38.70%) 전 해남군의회 의장이 윤재갑(36.86%) 전 해군 군수사령관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정영덕(32.83%) 후보가 김산(30.17%), 홍금표(21.14%), 이동진(15.87%)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광양시장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 보성군수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 고흥군수 공영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다. 또 현직 군수인 신우철 완도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도 단수 추천됐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초 실시될 예정이며, 신안군수 후보 경선은 보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 비어있는 무안과 해남은 지방의원들이 후보가 됐다. 해남군수 경선은 이길운(38.70%) 전 해남군의회 의장이 윤재갑(36.86%) 전 해군 군수사령관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정영덕(32.83%) 후보가 김산(30.17%), 홍금표(21.14%), 이동진(15.87%)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광양시장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 보성군수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 고흥군수 공영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다. 또 현직 군수인 신우철 완도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도 단수 추천됐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초 실시될 예정이며, 신안군수 후보 경선은 보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루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6면  
KIA 아쉬운 4월-이변주 만회 ▶20면

# 2018 PINK RUN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